



“나무극예술연구회”

<Intro>

12 월 초의 백양로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겨울 날씨에 한껏 움츠러들어 있었다. 지친 학생들 사이에 떠밀려 가던 나무극회 현직 회장 남은숙씨는 길 한 쪽의 신문 진열대에 놓인 나무춘추 한 부를 집어 들었다. “나무극회 <십이 분의 일>, 대학 연극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다. 기사는 <십이 분의 일>의 색다른 시각과 연출력을 칭찬하며 나무극회의 시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기사를 읽는 남은숙씨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서려있었다. 나무극회 내부에서는 <십이 분의 일> 공연의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진지하게 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 남은숙씨는 정기 종강 총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번 정기 종강 총회의 논의 주제는 ‘오디션(Audition)’이었다. 종강 총회 내내 오디션 존폐여부를 두고 극회 회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논란은 2008 년 즈음부터 불거졌지만 회원들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오디션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디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져다 준 게 뭐죠? ‘Open’? 그럼 ‘Open’은 뭔가요? 여기서 ‘Open’에 대해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Open 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우리 모두 Open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디션을 시행한 후로 신입회원들의 연극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진 것도 모두들 아시는 사실이겠죠.”

“꼭 오디션이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덜 폭력적인 통과의례를 통해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신입회원들의 극회에 대한 소속감 역시 다른 방안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션은 극회 사람들의 연기 실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동아리 내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오디션을 처음 접하는 신입 회원들의 부담감이 늘어났고 최근 신입들 중 일부는 오디션을 경험한 후 동아리를 이탈했다. 특히 이번 2 월에 이탈한 회원 김성현씨는 극회

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에 극회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토로한 뒤 탈퇴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번 종강 총회에서는 최근 작업에서 오디션을 경험한 신입기수 회원들이 다시 한 번 오디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회장단은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오디션의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무극예술연구회, 그 역사>

1920년에 창립된 나무극회는 극을 쓰는 것부터 무대 연출, 소품 및 의상, 연기까지 모두 극회 내부의 자체적 힘으로 완성하고 있다. 약 90여 년 동안 100회의 정기 공연과 50여회의 소극장 공연 통해 연극적 역량을 키웠고 영어 번역극, 야외 공연, 락뮤지컬 공연 등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한국 대학 연극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56년부터는 매년 2번의 정기 공연과 2번의 소극장 공연을 올리고 있으며 5년 마다 학교 노천극장에서 ‘동문-재학생 합동 공연’을 올리고 있다. 극회는 회장단, 연출, 기획, 배우, 스태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태프는 다시 무대, 홍보, 조명, 분장, 소품, 의상, 음향으로 나뉜다. (Exhibit. 1)

극회 창립 ~ 1980년대 중반

나무극회는 1980년대까지 학교의 유일한 연극 동아리로서 꾸준히 수준 높은 공연을 올렸다. 1950년대에는 극회원들의 전문가적인 능력과 기존 작품에 대한 신선한 해석으로 대학 문화를 선도하는 극회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특히 1963년부터 1966년까지 4년 연속 ‘전국 대학 연극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으며 나무극회 창립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이 기간 동안 나무극회는 지방 순회 공연팀을 결성해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을 지방 소극장에서 재공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나무극회의 전성기를 경험한 극회원들은 1970년대까지도 나무극회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연극 작품의 선정부터 공연의 평가까지 큰 목소리를 내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며 대부분의 이들은 학교를 떠났고, 재학 중인 극회원들이 졸업한 선배들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불만을 표하면서 이들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작업 준비과정 시, 공연 리허설 2~3주 전에는 졸업한 선배들 10여명에게 연락을 취해 중간점검을 부탁하는 것이 의례였으나 이를 생략하고 공연을 올리는 일도 발생했다.

1980년대 중반 ~ 1990년대 중반

선배들과의 갈등 이후, 기존 연극 작업에 졸업 회원들의 후원과 적극적인 지도가 있었던 것과 달리 80년대 중반부터는 재학생들이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연극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 특히 1984년 신규 회장단은 동아리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나무극회의 회칙을 새롭게 개편하고 ‘오디션’이라는 입회제도를 새롭게 실시했다.

‘오디션’은 신입회원이 극회에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기존 극회원들 앞에서 자신의 성격과 내면의 감정을 허물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극회원 간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시작됐다. 오디션의 효과는 금세 나타났다. 신입회원들이 연기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연극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과거 연극 작업에서는 소수의 몇몇 회원들이 주요 배역을 돌아가며 맡았지만 오디션 제도 도입 이후에는 연기에 실제로 참여하는 회원들이 많아졌다. 또한 오디션 도입 이후에 실제 공연에서 연기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1984년에 활동했던 한미연씨는 :

“오디션이 처음 시작된 당시 신입회원이었는데 연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한다던가? 뭐 이런거요. 그렇게 연극 작업에서 스태프나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선배들이 신입회원은 무조건 오디션에 참가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오디션을 어떻게 치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확실한 건 오디션 이후에 연기에 대한 불안감이 모두 사라졌어요. 연극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운 좋게 주연도 맡게 됐죠.”

1985년 극회의 부회장을 맡았던 정진원씨는 :

“신입회원들은 오디션을 통해서 힘든 입회 관문을 거쳐 정식으로 회원이 됐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을 지켜본 회원들과의 동지의식이 졸업생 회원들의 간섭이 사라져 80년대 초반 부터 다소 해이해졌던 극회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했죠. 다시 말하면 오디션이 극회원들이 동아리에 대해 더욱 애착을 갖게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봐요.”

1993년 나무극회는 졸업생 극회원과 재학생 극회원이 함께 <밤으로의 긴 여로> 작업에 들어갔다. 졸업생 극회원 중에는 연극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극회원도 있어 연극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졸업생 극회원들이 연극 작업에 재학생 극회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극회원들 간 결속력도 매우 높아졌다. 이 공연을 통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나무극회가 재기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중반 ~ 현재

<밤으로의 긴 여로> 공연 이후 나무극회는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공연으로 교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계속 받아 왔다. 특히 많은 대회에서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아 과거의 전성기 시절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여졌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부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동아리에 대한 몰입도가 낮아지기 시작했다. 때문에 극회의 규율과 제도들이 과거와 달리 극회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갈등이 심화되자 논란은 오디션 제도 존폐여부까지 번졌다. 최근 몇 년 간 극회원들은 오디션 제도를 두고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폐지를 주장하는 측으로 나뉘어 서로를 비판했다.

입회과정

나무극회에는 신입회원 모집기간이나 별도의 입회절차가 정해져있지 않다. 극회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한 장의 지원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hibit. 2) 이는 연극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모두 가입을 받겠다는 취지로 극회의 초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다. 실제로 1 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을 앞 둔 학생, 대학원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극회에 가입 신청을 한다. 그러나 가입 신청 이후 정식 극회원이 되는 과정은 쉽지 않다. 나무극회에는 신입회원을 위한 소위 ‘신입생 환영회’나 ‘신입생 교육프로그램’ 등이 없고 다른 동아리와는 달리 극회원들이 따로 신입회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입회원이 정식 극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극회방에 들러 얼굴을 비추고 공식 모임인 총회와 연습 등에 자발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입회 관습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온 터라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있었다. 나무극회원들은 연극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학부생이라면 알아서 나무극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봄 학기 초 대부분의 동아리들이 신입생을 모집하는 기간을 갖는 것과는 반대로, 나무극회는 전통적으로 매 학기 초마다 공연을 개최해왔다. 학부 신입생들이 동아리를 탐색하는 기간과 극회의 정규 공연기간이 겹치는 한 편, 그 동안 별도의 모집절차 없이도 충분한 인원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나무극회 내부는 신입회원을 정기적으로 리크루팅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크다. 또한 어설프게 연극에 관심을 갖다가 떠나는 다수의 어중이떠중이 회원을 받게 되면 극회의 분위기가 흐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한 해 동안 입회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수와 ‘오디션’에 참여한 사람의 수의 격차는 매우 크다. 한 예로, 지난 2009 년 입회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20 명이었으나 정작 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3 명에 불과했다.

2009 년 당시 극회에 입회한 극회원 이수민씨는 :

“입학하자마자 연극이 정말 하고 싶어 나무극회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동아리 박람회라도 나무극회 자리만 텅 비어있어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5 월에 겨우 극회 홈페이지를 찾아 입회서류를 작성해 무작정 극회방에 방문했더니 고학번처럼 보이는 사람이 멀리 떨어진 책상 위에 서류를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극회방을 나오면서 ‘곧 연락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왔어요. 결국 10 월에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서 동아리 방에 찾아갔더니 선배가 하는 말이 ‘입회서류를 냈으면 알아서 꼬박꼬박 동방에도 오고 모임도 참석해야지’하는 거 있죠. 당시에는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 후 극회방에도 자주 찾아가고 모임 날짜를 알아내 참석하는 과정에서 오디션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폐쇄적인 모집방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지 신입회원은 점점 줄어들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존 극회원들은 뻘뻘한 연극 작업 일정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므로 불규칙하게 입회하는 신입 멤버들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극회원 윤바람씨는 :

“대부분의 극회원들이 작업이 시작되면 학기 중이건 방학이건 관계없이 하루에 4-5 시간씩 연극 작업을 해요.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소화하기 힘든 일정이다 보니 신입회원을 챙길 틈이 없어요. 일부러 신입회원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건 아니란거죠. 물론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신입회원을 챙기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그런데 막상 공식 행사에서 신입회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신입회원들이 종파티나 시파티, 종강총회에 와서 기존 극회원들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기존 극회원들은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작업에 참가하지 않았던 신입회원들은 당연히 알아들 수가 없죠. 그리고 공식 행사에 열심히 참석했던 신입회원들도 정작 오디션을 보고 작업이 시작되어 스스로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하나 둘씩 나가버리니깐 챙길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오디션’ 제도

나무극회 회칙에는 ‘극회의 모든 회원은 오디션을 통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4. 회원의 권리와 의무 (나무극회 회칙 중 일부)

- 1) 나무극회의 모든 회원은 오디션을 통과하여야 한다.
- 2) 본회의 정회원은 오디션을 통과하고 2번 이상의 공연 동안 연습기간 전반에 걸쳐 배우, 기획, 스태프로 참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 회의 공연으로 인정하는 여부는 회장단과 해당 공연 연출부의 만장일치로 정한다. 정회원은 극회의 주요 활동과 결정 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권을 가진다.

나무극회의 오디션 제도는 신입회원이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로 대략 15년 전부터 이어져왔다. 오디션이 시작되면 신입회원은 무대에서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약 3~6시간 동안 자신의 숨겨진 모든 모습을 드러낸다. 한 명의 오디션은 심사위원이라고 불리는 5명의 선배가 신입회원이 ‘오픈(Open)’됐다고 인정해야만 끝나게 된다. ‘오픈(Open)’이란 연극에서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로, 본인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오디션은 모든 신입회원이 통과될 때까지 2일에 걸쳐 쉬지 않고 진행된다.

2010년 극회의 회장을 맡았던 김재형씨는 :

“극회원들은 오디션을 통해 본질적인 무대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연극적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극회 전체 차원에서는 어려운 과제를 부여 받고 통과한 극회원들 사이의 소속감과 유대감이 높아집니다. 물론 오디션의 과정이 순탄히 흘러가지 않으면 극회원들에게 폭력적일 수 있지만 의도한 과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디션에 참여한 극회원에게 상당한 연극적 역량을 키워주는 기회가 될 겁니다. 특히 우리 극회는 극회원 모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극회 전체 차원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작업에 참여한 신입 회원들 중 몇몇은 극회의 정식 회원이 되기 위해 오디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현재의 회칙에 반대한 바 있다.

2012년 입회한 극회원 이풀잎씨와 강혜미씨는 :

“오디션의 형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군요. 신입회원 한 명을 중앙에 두고 앞엔 이른바 심사위원이 쪽 늘어서서 앉고 양 옆에는 다른 극회원들이 앉아서 신입회원을 마치 구경하듯이 지켜보고 있죠. 이런 상황과 이런 분위기가 오픈에 큰 도움을 줄까요? 우리들은 오디션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가로막고 있던 벽을 깬다고 말해요. 그런데 막상 오디션을 보는 상황 자체가 일종의 또 다른 벽이 아닌가 싶어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필해 보라니... 물론 심사위원들이 이끌어 주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에너지를 이끌어 내어서 무엇을 표현한다, 열정을 체험한다... 그것이 너무 벅찬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우리 학교에 들어온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일에 매우 익숙하지 않죠. 오디션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형태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오디션 제도의 부담감과 이를 둘러싼 극회원 간의 의견 충돌이 심화되면서, 논의는 오디션의 존폐여부까지 확대됐다.

나무극회 회칙 (Exhibit. 3)

나무극회의 회칙 중 연극 작업 진행 관련 조항에는 ‘모든 공연 참가자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관혼상제나 모두가 인정하는 기타 타당한 이유로서만 공연 연습을 빠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무극회는 보통 1년에 총 4회의 연극 작업을 통해 공연을 올리고 있는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연극 작업마다 모든 극회원들이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본격적으로 연극 작업이 시작되면 극회원들은 주 5회 4시간 씩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심지어 연극 작업을 위해 중도 휴학을 결심하는 극회원들도 적지 않다.

극회원 김초록씨는 :

“지난 학기 연극 작업 시간과 한 전공수업의 조모임 시간이 여러 번 겹쳐 조모임에 대부분 참여할 수 없었어요. 조모임에서 요구한 과제는 모두 제출하고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조모임원 상호평가에서 최하점을 받고 말았죠.”

비단 김초록씨뿐만 아니라 극회원들이 극회 활동으로 인해 학업 및 개인 일정에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극회원들은 공식적인 작업 시간 외에도 연극 작업이 시작될 때 동문들과 모여 극회원들이 작업을 소개하는 ‘시파티’와 연극 작업 후 동문들이 모이는 ‘종파티’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또한 회칙 중에는 극회원 한 사람의 실수를 단체의 책임으로 여기는 것들이 많은데, 한 예로 극회원 한 명이 작업 시간에 지각을 하게 되면 해당 연극 작업에 참여하는 회원 모두 기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나무극회원들은 아마추어 공연의 특성상 무엇보다 조직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율이 없으면 극회원들이 동아리, 특히 연극 작업을 공식적인 조직으로 여기지 않아 극회원들의 태도가 해이해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연극 작업에서 회칙이 엄격하게 적용됐을 때 연극의 질이 높아졌다는 기존 멤버들의 평가가 많았다.

2010 년 극회의 회장을 맡았던 김재형씨는 :

“연극 작업은 모든 참여멤버들이 100%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강압의 소지가 있는 문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극회원들이 회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연극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겠죠. 회장단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공연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나무극회의 조직구조

나무극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극회 활동을 오래한 선배’와 ‘연출자’가 대부분 진행한다. 극회 활동을 오래한 선배들이 나무극회의 연극 교육을 담당하는데 이와 같은 교육이 없으면 신입회원들이 연극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없어 작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나무극회는 10 여 년째 70-80 학번 선배들이 연간 4 회의 공연 중 2 번의 정기 공연의 연극 작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선배들이 참여한 연극은 학생들만 참여했던 연극보다 질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선배들이 연극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현재 활동 중인 극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연극 작업을 이끌어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또한 선배들이 참여하는 연극 작업에서 활동 중인 극회원들은 잔심부름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연극 작업에서 연출을 맡은 극회원이 현재 활동하는 회원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연출부는 회장단과 기존 회원들이 고학번 극회원 들 중 연극 작업에 가장 활발히 참여하고 연극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회원을 선별해 임명한다. 연출부에 소속된 회원은 연출 작업뿐 아니라 스태프, 연기, 기획 등 연극 작업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예산 배분, 일정조율 등 작업 전반에 걸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나무극회를 둘러싼 환경 변화>

나무극회는 신입회원 모집기간이 없는 독특한 문화와 ‘오디션’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통 연극 동아리로서의 극회의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연극 작업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과거 나무극회는 교내의 유일한 중앙 공연동아리였기 때문에 연극에 대한 열정이 높은 신입회원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방식이 효과적이었다. 엄격한 회칙은 뻑뻑한 연극 작업일정을 견뎌낼 극회원만 나무극회에 남도록 했고, 이를 통해 걸러진 극회원들은 ‘오디션’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속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4~5 년 전부터 교내 단과대의 극회 및 중앙 뮤지컬 동아리 등의 성장으로 인해 나무극회에 지원하는 신입회원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공식 홍보 기간이 없이도 연간 기준

나무극회에 입회를 신청하는 회원 수가 평균 15~20 명 수준으로 유지되었던 과거와 달리 한 학기에 입회 원서를 제출하는 수가 5명 남짓으로 감소한 것이다. 또한 취업난으로 인한 스펙 쌓기와 학점 관리에 바쁜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에 ‘가벼운 취미’ 이상으로 개인 시간을 할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무극회 내부적으로는 ‘오디션’제도로 대표되는 엄격한 회칙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해졌다. 오디션 제도를 찬성하는 극회원들은 소위 ‘전통 고수파’로 불리며 정극을 추구하고 내부 규범 강화를 지향하며 극회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배들은 전통 고수파에 속해 예전과 같은 수준의 공연을 준비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동문-재학생 합동 공연’을 앞둔 최근 동아리에 들어온 신입회원들에게는 더욱 많은 노력과 동아리에 대한 애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오디션 제도를 반대하는 극회원들은 새롭게 대두한 세력으로 ‘신진파’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정극이 아닌 다양한 연극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대하며 오디션 제도 반대뿐만 아니라 내부 규범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2013년 첫 번째 연극작업: 엔드게임>

작업 기간: 2013년 7월 13일~9월 6일

공연 일시: 2013년 9월 3일~9월 6일

2013년 여름 작업으로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의 부조리극 <엔드게임>이 채택되었다. 엔드게임의 작업 인원은 총 11명으로, 기존 극회원 8명과 신입회원 3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신입회원 3명 중 2명은 배우 겸 스태프를 맡았고, 1명은 배우로 참여하지 않은 채 스태프로만 참여했다.

부서 배정

이번 작업에는 신입회원 이푸름, 현지영, 서윤호씨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모두 이번 작업 기간에 실시한 오디션을 통과했다. 현지영씨는 5월에 지원서를 낸 후 극회의 모든 행사에 참석했고, 이푸름씨와 서윤호씨는 6월에 지원해서 방학부터 본격적으로 극회 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이들과 기존회원 8명이 작업에 지원하여 총 작업 인원은 11명이었다.

나무극회는 작업에 참여하는 신입회원들에게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부서 1지망과 2지망을 조사했다. 최종 결정은 연출부가 작업 인원들이 제출한 희망 부서와 작업 인원들의 특성, 그리고 부서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배정했다. 신입회원 현지영씨는 2지망이었던 홍보에, 서윤호씨는 1지망이었던 무대에, 이푸름씨는 지망하지 않았던 의상에 배정되었다.

중간점검

중간점검에서 각 부서의 진행률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진행률이 더딘 의상팀과 홍보팀이 주의를 받았다. 또한 대본을 가지고 오지 않거나 지각을 한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푸름씨는 중간점검까지 2 회 지각을 한 바 있어 경고를 받았다. 이번 작업은 무대 부서의 역할이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무대의 진행상황에 대해 자세한 보고가 있었다.

<엔드게임> 중간점검 (8 월 2 주차)

진행단계 부서	7 월 2 주차	7 월 3 주차	7 월 4 주차	8 월 1 주차	8 월 2 주차
무대					→
홍보				→	
소품					→
조명					→
의상				→	
음악/음향					→
분장					→

오디션

이번 작업의 오디션에는 1 학기에 새로 들어온 신입회원 이푸름, 서윤호, 현지영씨가 참여했다. 그 중 서윤호씨는 40 분, 현지영씨는 4 시간 만에 통과했다. 그러나 이푸름씨는 5 시간이 지난 후에도 통과하지 못해 다음 오디션에 다시 한 번 참가하기로 결정되었다.

공연

공연 일주일 전 최종 점검 때 중요 의상 여러 벌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클로브’ 의상이 공연 며칠 전까지도 확정되지 않았고 ‘넬’의 의상은 캐릭터와 맞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기존 의상팀이 준비했던 의상으로는 해결 되기 힘들었고, 공연 일정이 너무 촉박해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결국 ‘클로브’의 의상은 공연 전날 아름다운 가게에서 구매했으며, ‘넬’의 의상은 배우 본인이 집에서 가져온 의상으로 정해졌다.

<엔드게임> 최종점검(9 월 1 주차)

진행단계 부서	7 월 2 주차	7 월 3 주차	7 월 4 주차	8 월 1 주차	8 월 2 주차	8 월 3 주차	8 월 4 주차	9 월 1 주차
무대								→
홍보								→
소품							→	
조명								→

나무극회의 2013년 가을작업은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太宰 治)의 단편 소설 <직소>를 희곡으로 번안한 작품인 <십이분의 일>로 정해졌다. 신입생 모집 활동으로 인해 <십이분의 일>은 나무극회의 일반적인 작업과는 달리 신입 회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작업의 규모도 커졌다. 인원은 총 21명으로, 기존 회원 11명과 신입 회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회장단과 연출의 사전 회의 결과, 학기 중에 진행되는 가을 작업의 특성상 이번 작업에는 오디션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배정

부서 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작업 인원들의 희망 부서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출이 종합적으로 결정하였다.

<십이분의 일> 부서 배치 현황

부서	배우 (배우는 스태프 병행)		스태프		계
	기존	신입	기존	신입	
무대	2	1		1	4
홍보	2	1		1	4
소품	1	1		1	3
조명	2	1			3
의상	1	2			3
음악/음향	1		1		2
분장		1	1		2
계	9	7	2	3	21

중간점검(10월 3주차)

<십이분의 일> 중간점검(10월 3주차)

진행단계 부서	9월 1주차	9월 2주차	9월 3주차	9월 4주차	10월 1주차	10월 2주차	10월 3주차
무대						→	
홍보						→	
소품					→		
조명						→	

의상					→			
음악/음향						→		
분장						→		

공연 1 주 전 최종점검 (12 월 1 주차)

공연 1 주전, 최종 점검 단계에서 홍보와 소품, 그리고 의상의 미비가 지적되었다. 홍보팀에서 인쇄한 포스터에 공연 시간이 잘못 인쇄되어 이를 따로 스티커를 인쇄하여 붙이는 작업을 했다. 티켓 및 팸플릿은 아직 인쇄소에 맡겨져 있지 않았다. 최종 리허설 과정에서 연습 때 쓰던 가소품이 실제 소품으로 대체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발견되었다. ‘노부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준비되지 않았고, 무대 위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드럼통에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책상 위에 올려놓는 물병이나 벽걸이 장식 등 무대를 채우기 위한 장식적인 소품들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노부 할아버지’, ‘구보타’의 2 막 의상이 확정되지 않았다. 앞치마, 고무장갑 등 세세한 의상이 준비되지 않아 해당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자비로 구매하거나 가져왔다.

<십이분의 일> 공연 1 주 전 최종점검 (12 월 1 주차)

진행단계 부서	9월 3주차	9월 4주차	10월 1주차	10월 2주차	10월 3주차	10월 4주차	11월 1주차	11월 2주차	11월 3주차	11월 4주차	12월 1주차
무대											→
홍보									→		
소품										→	
조명											→
의상											→
음악/음향											→
분장											→

합평회 (Exhibit. 6)

이번 공연은 총 예산 ₩3,580,000 으로 작업하여 총 4 회 공연에 관객수 453 분으로 집계되었다. 마지막까지 극회원들이 우왕좌왕했지만 결론적으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공연은 신입회원들이 많이 출연해 전반적으로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다수의 관객들이 전했다.

“연출이 무대 소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대본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공연 당일에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 같네요.”

“스태프 부서의 진행 과정이 작업과정에서 잘 보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태프일 진행을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네요.”

“소품과 의상이 미비했고 조명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대사가 씹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는 마지막에 긴장이 풀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작업에 비해 유난히 이번 작업에서는 지각이나 결석이 빈번했습니다.”

<12/14 종강총회>

학기 말을 앞두고 20 여명의 극회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학기에 진행한 두 차례의 공연을 볼 때, 작업 도중의 회원 이탈과 잦아진 지각 등 동아리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회장단의 내부 판단이 있었다. 특히 작업 경험이 전무한 신입 회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공연 ‘십이분의 일’의 경우, 배우들의 연기 수준이 작년 공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는 관객 평이 뒤따른 것이다. 먼저, 엔드게임 작업 당시 신입회원 이푸름씨가 작업 도중 극회를 나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함께 극회에 들어온 저희가 볼 때에는, 연출부의 독단적인 작업 배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푸름씨가 입회 초기부터 무대 지망을 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자기어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상 스태프로 배정된 것은 연출부의 책임 아닌가요?”

“이푸름씨는 원래부터 지각이나 회의에 결석이 잦았고 딱히 우리 극회에 애착이 커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성실성이 보이지 않은 사람에게 작업에 중요할 역할을 맡기기엔 위험부담이 큼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하지만, 작업 전에 진행했던 참가 부서 조사가 의미가 있기는 한가요? 탈퇴한 이푸름씨 만큼은 아니지만, 신입 기수 중 여러명이 본인이 지망하지 않았던 부서의 보조 스태프로만 참여해야했던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즐겁자고 하는 대학동아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부서가 아닌 전혀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탈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임의로 해당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생각 역시 지울 수 없군요.”

한 편, 마지막 공연작업을 진행했던 신입회원 10 명의 오디션 절차를 겨울방학을 맞아 시행해야하지 않겠냐는 선배 회원의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신입 회원들의 반발은 예상외로 거셌다. 오디션에 참여할 필요를 못느낀다는 의견과 더불어 지난 봄학기에 진행된 첫 번째 오디션 과정에 참여한 멤버들의 불만이 대두되었다.

“이번 작업에 참여한 신입 회원 분들은 아직 우리 극회의 정식 회원으로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미 한 번의 정식 공연에 참여하며 기존 회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노력을 투자했는데 이제와서 다시 오디션을 봐야 하나요?”

“꼭 오디션이 아니더라도 MT 라던지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은 통과의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두 세 시간씩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재롱잔치를 하는 느낌이지 이 경험이 무대에 서는 것과 대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오픈(Open) 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른바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건데, 이는 ‘우리 마음에 찰 때까지 한 번 놀아봐라’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무극회에 있어 오디션은 단지 입회과정의 문제가 아니다. 오디션은 지난 15년 간 모든 극회원이 거쳐온 과정으로, 비록 아마추어이지만 프로의 자세를 갖고 정통 연극에 임한다는 극회의 목표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또한 이를 폐지시 극회의 최대 후원자인 원로 회원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오디션의 폐지는 입회과정의 변화로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극회의 조직구조와 문화에 전반적인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결정의 시간>

회장단 남은숙씨는 극회 방의 문을 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연극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렇게나 놓인 의자 중 하나에 걸터앉아 어제 밤 술자리에서 만난 선배의 말을 떠올렸다.

2002년에 극회에서 활동한 전나무씨는 :

“오디션을 없애는 게 말이 돼? 지금 활동하는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 나무극회가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오디션이랑 규 칙때문이잖아. 오디션을 없애면 동아리 기반이 흔들릴거라구. 그 아이들도 오디션을 잘 이겨냈고 규칙도 다 지켜왔던 거 아니야? 그리고 고작 02 학번인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OB 선배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거야. 선배들의 도움없이 는 작업 하나 올리기도 힘들텐데.”

그러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의견도 무조건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앞으로 극회를 이끌어갈 것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남은숙씨가 지금 선배의 말을 따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현재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이 오디션 제도를 결국 폐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신입회원 강혜미씨는 :

“많은 사람들이 오디션 제도를 없애는 것과 동아리 회칙을 좀더 유연하게 바꾸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잖아요. 선배가 지금 오디션 제도를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선배들이 졸업한 뒤에 과연 얼마나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현재 극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신입 회원들의 반대의견이 거센 상황에서, 회장 남은숙씨는 오디션 제도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극회원들을 설득하거나 이번 학기 이후로 오디션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Exhibit. 1-1
<연극 작업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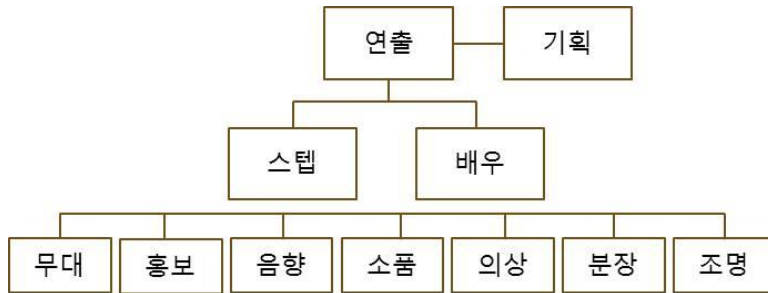


Exhibit. 1-2
<회장단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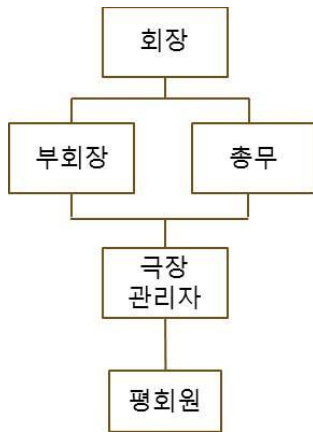


Exhibit 2. 나무극예술연구회 입회원서

이름 : (남/여)	계열 과 학번
생일 : 년 월 일 (양/음)	핸드폰 :
주소 :	이메일 :
<가입 동기 + 나무극회에서 얻고 싶은 것>	
<취미 및 남는 시간에 하는 것>	<자신만의 특기 및 특징>
<연극 경험>	
<좋아하는 작품> *꼭 연극이 아니어도	
<좋아하는 극 중 인물>	<해보고 싶은 역>
<자신이 연극을 만든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것>	<세상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경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살면서 가장 열심히 했던 일>

20 년 월 일 신청인 :

Exhibit 3.

<나무극회 회칙 중 일부 발췌>

제 1 장 총칙

1-4.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나무극회의 모든 회원은 오디션을 통과하여야 한다.
- 2) 본회의 정회원은 오디션을 통과하고 2 번 이상의 공연 동안 연습기간 전반에 걸쳐 배우, 기획, 스태프로 참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 회의 공연으로 인정하는 여부는 회장단과 해당 공연 연출부의 만장일치로 정한다. 정회원은 극회의 주요 활동과 결정 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권을 가진다.
- 3) 본회의 준회원은 본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정회원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자를 말한다. 준회원 역시 극회의 주요 활동과 결정 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권을 가진다.
- 4) 본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을 통틀어 “회원” 또는 “극회원”이라 칭한다.
- 5) 회원은 회칙과 회칙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기 회비는 1 년에 2 회 납부하며 금액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단이 정한다. 본회의 사정에 따라 회장단은 비정기 회비를 걷을 수 있다. 회비는 공연 비용 명목으로 걷히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7)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다른 회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자행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러한 일이 생길 경우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위자를 제명시킬 수 있다.

3-1. (정기 총회)

- 1) 1 년에 2 회씩의 개강총회와 종강총회를 정기 총회로 한다.
- 2) 정기 총회에는 모든 극회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 3) 정기 총회 소집 시에 학기당 한 번씩 회비를 걷는다.
- 4) 회장단은 열흘 이전에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고 일주일 이전에 주요 안건을 개시하여야 한다.
- 5) 회장은 의장으로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6) 회장단은 사전에 회원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 참석과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7) 회의의 내용은 문서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야 하며 필요 시 회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 8) 회장단은 회의 결정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4. (오디션)

- 1) 오디션은 본회만의 신입회원 환영식으로 모든 회원이 반드시 통과하여야 한다.
- 2) 입회 오디션은 1 년에 2 회 이상 실시하며 일시와 장소는 회장단이 정한다.
- 3) 심사위원으로는 고문단과 동문을 합쳐 4 인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4) 오디션을 고의로 회피하여 합격하지 못한 준회원은 오디션을 심사하지 못한다.
- 5) 회장은 오디션을 진행하며 응시자의 합격 여부를 선언한다.
- 6) 준회원으로서 회장으로 활동하여 임기를 마친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오디션을 면제한다.
- 7) 오디션에는 총회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3-5. (시파티)

- 1) 시파티는 총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2) 회장단은 시파티 10 일 이전에 동문 및 회원에게 시간 및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 3) 회장단 및 기획단은 시파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 4) 회장은 시파티를 진행한다.
- 5) 시파티는 동문과 같이 모이는 행사이므로 되도록 동문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체육대회, 야유회 등)를 준비하여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여야 한다.
- 6) 시파티의 비용은 공연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3-7. (종파티)

- 1) 종파티는 총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2) 회장단 및 기획단은 종파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 3) 회장은 종파티를 진행한다.
- 4) 종파티는 동문과 같이 모이는 행사이므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준비하여야 한다.
- 5) 종파티의 비용은 공연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3-8. (합평회)

- 1) 합평회는 공연 참여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 2) 회장단 및 연출부는 합평회에 공연 참여자 전원이 참석하여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 3) 합평회의 내용은 기록하여야 하며 원하는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4) 합평회는 회장이 진행한다.
- 5) 합평회 날짜는 종파티에 회장이 공지하여야 하며 종파티 당일로부터 4 일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 6) 모든 공연 참여자는 소감과 자료를 준비하여 합평회 때 제시하여야 한다.
- 7) 기획단은 합평회에서 공연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4-3. (연습 진행)

- 1) 공연 연습은 무대감독이 진행한다.
- 2) 공연 연습은 다치는 자가 없도록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3) 공연 연습은 학사 일정에 심각한 지장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 4) 모든 공연 참가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관혼상제나 모두가 인정하는 기타 타당한 이유로서만 공연 연습을 빠질 수 있다.

5-2. (연출부)

- 1) 연출과 조연출을 합쳐 연출부라 한다.
- 2) 연출은 정회원만이 맡을 수 있다.
- 3) 연출은 연습 시작 전에 정해져야 한다.
- 4) 연출은 공연에 관련된 모든 포괄적 권한을 가진다.
- 5) 연출은 공연에 관련된 조직을 구성한다.
- 6) 연출은 중대한 의사 결정시 회장단, 기획단과 상의하여야 한다.
- 7) 연출은 성실한 준비 및 연습 진행으로 수준 있는 공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8) 조연출은 연출이 정한다.
- 9) 조연출은 연출을 보조하며 회원 중 누구나 맡을 수 있다.

Exhibit 4. <엔드게임> 합평회 자료

총예산 200 만원
총 지각 및 결석 횟수
1 회공연 관객 총 60 분 (일반 19 극회 9 타대극회 6 초대 26)

2 회 공연

관객 총 73 분 (일반 22 극회 5 타대극회 11 초대 31)

3 회 공연

관객 총 92 분 (일반 33 극회 12 타대극회 7 초대 40)

4 회 공연

관객 총 142 분 (일반 34 극회 33 타대극회 12 초대 63)

총 4 회 공연 총 관객 367 분 (극회 59 포함)

Exhibit 5. 신입회원 모집 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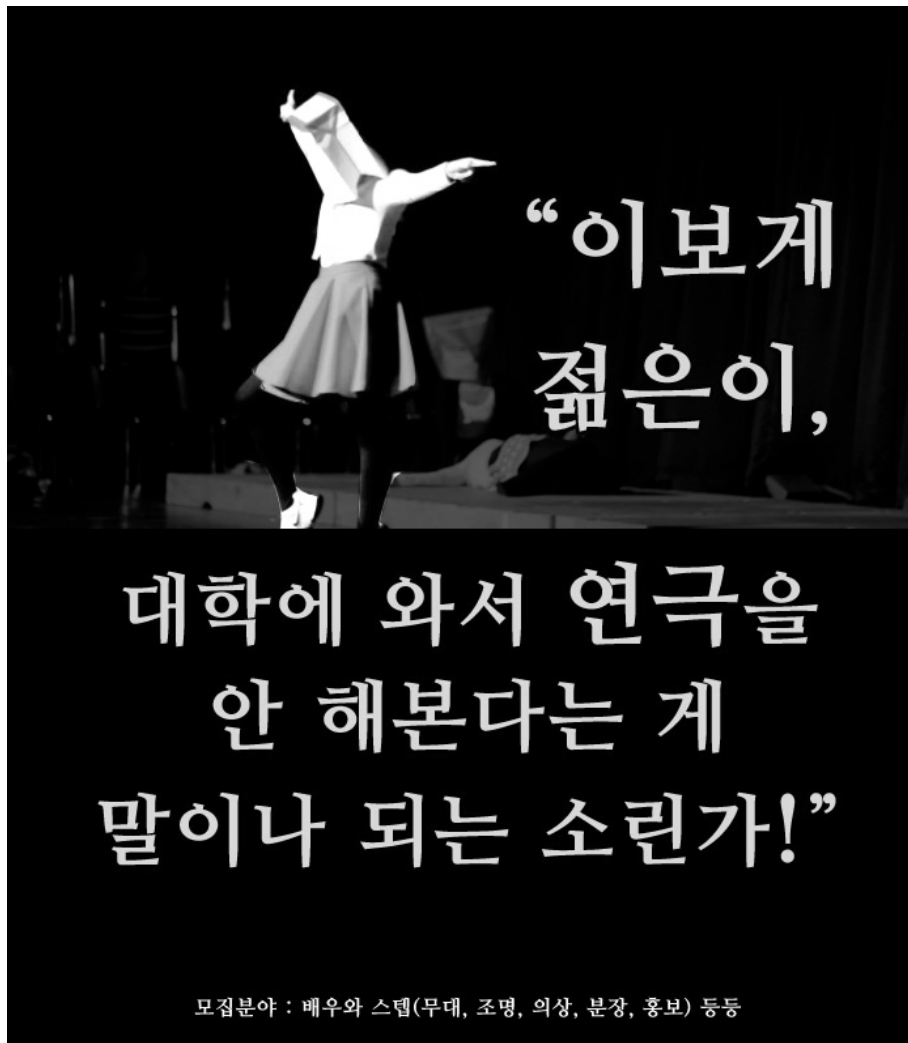


Exhibit. 6 <십이분의일> 합평회 자료

총예산 358 만원

총 지각 및 결석 횟수

1 회공연

관객 총 93 분 (일반 26 극회 15 타대극회 7 초대 45)

2 회 공연

관객 총 86 분 (일반 32 극회 11 타대극회 6 초대 37)

3 회공연

관객 총 112 분 (일반 34 극회 17 타대극회 8 초대 53)

4 회공연

관객 총 162 분 (일반 34 극회 33 타대극회 9 초대 75)

총 4 회공연 총 관객 453 분 (극회 76 포함)

<케이스문제>

1. 나무극예술연구회는 어떤 식으로 결속과 문화를 유지하는가
 - 조직 자체가 변화를 차단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이와 같은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3. 나무극예술연구회는 어떤 식의 변화가 필요할까?
 - 외부 상황의 변화는 어떤지
 - 현재의 상황에서 오디션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시도가 필요한가?